

19 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3개도(경상남도, 전라남·북도), 1개시, 4개군, 15개 읍·면의 행정구역이 속해 있으며, 그 면적이 471,758km<sup>2</sup>로서 20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악형 국립공원이다.

지리산(智異山)을 글자 그대로 풀면 “지혜로운 이인(異人)의 산”이라 한다. 이 때문인지 지리산은 여느 산보다 많은 은자(隱者)들이 도를 닦으며 정진하여 왔으며 지리산 골짜기에 꼭꼭 숨어든 은자는 그 수를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.

지리산은 예로부터 금강산,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(三神山)의 하나로 민족적 숭앙을 받아 온 민족 신앙의 영지(靈地)였다. 지리산의 영봉인 천왕봉에는 1,000여년 전에 성모사란 사당이 세워져 성모석상이 봉안되었으며, 노고단에는 신라시대부터 선도성모를 모시는 남악사가 있었다.

반야봉, 종석대, 영신대, 노고단과 같은 이름들도 신앙을 상징한다.

구름 위에 떠 있는 고봉 준령마다 영기가 서리고, 계곡은 웅장하면서도 유현(幽玄)함을 잃지 않는다.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 능선의 거리가 25.5km로 60여리가 되고, 둘레는 320여 km로 800리쯤 된다. 지리산의 너른 품안에는 1,500m가 넘는 20여개의 봉우리가 천왕봉(1,915m), 반야봉(1,732m), 노고단(1,507m)의 3대 주봉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, 20여개의 긴 능선이 있고 그 품속에는 칠선계곡, 한신계곡, 대원사계곡, 피아골, 뱀사골 등 큰 계곡이 있으며, 아직도 이름을 얻지 못한 봉우리나 계곡이 많다.

이렇게 넉넉한 지리산의 웅장하고 아늑한 산세는 영·호남의 지붕으로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, 생명의 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. 지리산의 북쪽으로는 만수천-



임천-엄천강-경호강-남강-낙동강이 이어지며,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흘러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, 천왕봉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천왕샘을 비롯하여 주능선 곳곳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. “산은 사람을 가르고, 강은 사람을 모은다.” 고 했다.

경남의 하동, 함양, 산청, 전남의 구례, 전북의 남원, 이렇게 3도 1시 4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풍부한 동·식물만큼 그 문화는 동서간을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권으로 만들기도 했다. 그래서 지리산은 단지 크고, 깊고, 넓은 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다른 매력이 있는 산이다. **▲**

## 연혁

- 1967. 12. 29 국립공원 제1호 지정(건설부 공고 제 164호)
- 1971. 02. 09 지리산국립공원 전라남도관리사무소 개소
- 1971. 06. 10 지리산국립공원 전라북도관리사무소 개소
- 1973. 06. 10 지리산국립공원 경상남도관리사무소 개소
- 1987. 07. 01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(동.북.남부 3개 사무소 개소)
- 1991. 04. 23 국립공원 업무이관(건설부 → 내무부)
- 1998. 02. 28 국립공원 업무이관(내무부 → 환경부)
- 1998. 12. 18 지리산관리사무소 통합(남부.북부지소 운영)
- 2004. 12. 30 지리산사무소 명칭변경(남부.북부사무소 운영)

### 찾아오는 길안내

-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지리산사무소   |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922-18 | 055)972-7771~2 |
| 지리산남부사무소 |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511-1    | 061)783-9101   |
| 지리산북부사무소 |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93-4   | 063)625-8911   |

사진제공 : 천왕봉의 위용  
사진제공 : 국립공원관리공단